

## 哲學의 世界觀的 基礎

### 哲學濫重의 概念에 抗하야(三)

金午星

칸트以後 모든 觀念 哲學者들은 世界觀을 認定하면서도 그것을 哲學의 領內에서 驅逐하려 하였다. 現代의 代表的 哲學의 하나인 現象學派의 훗셀에 依하면 世界觀은 오직 그時代에만 關係하는것이나, 哲學은 永遠에 關係하며 또 後代의 未來諸世代에까지 關係하는것이라하야 有限的인 世界觀이 無限的인 哲學의 基礎가 될 수 없다 하였다. 그러나 훗셀은 絶對者, 永遠을 追求하는 各 時代의 모든 哲學體系가 그 다음 時代에서 보면 決局 그 時代의 世界觀의 制約된 當時의 絶對者 를 벗잡는데 不過한것, 그리고

自己의 哲學이 한갓 顔落期의 市民層世의 變質한 世界觀에 立脚하고 있음을 自覺치 못한것이 아닌가! 칸트와 훗셀의 影響을 받은 막스-셀멸은 世界觀을 모든 經驗科學과 한가지로 『人間의 世界에 對한 支配的 衝動』에서 생기는 것이라 했다. 그러나 이러한 實利的 知識에 滿足할 수 없고 항상 絶對者를 追求해마지안는 人間의 本性은 다시 本質認識(哲學)形而上學(解脫의 知識)을 要求한다. 그런대 本質認識과 形而上學은 實利的인 知識을 解脫함으로서만 獲得할수 잇다하야 그는 哲學의 領域에서 世界觀을

意識 的으로 驅逐함으로서 世界觀없는 哲學, 일른바 『哲學的 世界觀』을 建設하려 하였다. 이밖에도 新칸트派의 리켈트, 實存 哲學者의 야스벨 등이 實際生活에 立脚한 世界觀을 驅逐함으로서 純粹한 『哲學的 世界觀』을 建設하려고들 한 것이다.

이와 같이 哲學과 世界觀을 分離시키며 또는 哲學領內에서 世界觀을 驅逐하려는 傾向은 무엇 때문에 생겨지는 것일까?

첫째, 哲學과 世界觀의 出發點을 原理的으로 區分해보는 誤謬에서 오는 것이다. 世界觀은 生活者의 感性이나 直觀에서 일러지는 것이나, 哲學은 오직 特殊한

**頭腦**의 抽象化, 概念化를 통해서만 自己를 實現한다. 그런데 抽象化, 概念化는 感性, 直觀과는 區別되는 悟性理性 等の 作用이다. 이리하여 哲學의 現實的 動機를 忘却하고 抽象力, 概念力을 哲學의 動機로서 생각하는데서 世界觀과 哲學을 別個의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感性, 直觀과 悟性, 理性을 別個의 것으로 區別한 人中에 가장 有名한 이는 아마도 칸트일 것이다. 그에 依하면 感性은 오직 事物의 現象을 素材로서 觸發할 뿐이며, 直觀은 觸發된 素材에 時間과 空間의 形式을 加한, 한가지로 受動的인것임에 反하여

**悟性**과 理性은 感性, 直觀이 觸發한 素材를 範疇에 依하여 統一的으로 構成하는 能動性을 가진 것이다 그러므로 感性, 直觀은 哲學의 原始的 動機가 될 뿐이오. 悟性, 理性만이 哲學을 構成한다는 것이다. 칸트는 感性, 直觀을 哲學의 動機로는 認定했다. 그가 講域哲學의 外에 市民哲學을 認定하드시. 그러나 그 뒤의 新칸트派를 爲始한 모든 概念哲學은 感性, 直觀을 아주 哲學領域에서 驅逐하고 말았다. 哲學은 能動的인 悟性, 理性에 依할뿐이오. 所與의 對象에 執着하는 感性, 直觀은 哲學의 構成에 아무 힘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世界觀없는 哲學이 생긴 것이다.

그러나 感性和 直觀을 受動的인것으로 보는 것은 觀念哲學의 錯誤가 아닐까? 나의 보기에는 그들과는 正反對로 오히려 悟性, 理性等이 受動的인 것이다. 抽象化, 概念化는 感性, 直觀이 提供하는 存在를 그 多樣性을 單純化, 要約化하는것이며, 그 存在의 本質을 捉어내는 것을 일음이다. 그러므로 悟性, 理性은 언제나 多樣의 素材를 가진 感性直觀에 聯結되어 있는대서만 그 作用의 原動力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感性, 直觀을 떠난 悟性, 理性이 무엇에 對한 能動性을 가진단 말인가? 感性, 直觀을 떠난 悟性, 理性은 그것이

**空想**을 捉어내는 데는 能할른지 몰으나, 現實을 把握하며 實生活을 指導하는대는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그 反對로 直接 生活에 結付해 있는 感性, 直觀은 人間의 生活行爲가 環境에 對하여 항상 能動的임과 같이 언제나 能動的이다. 感性, 直觀은 單히 所與된 現實을 反映할뿐이 아니고, 그들의 生活實踐과 함께 때로는 現實을 克服하며 現實을 創造하면서 있는 것이다. 오직 感性, 直觀의 弱點은 그自身の 獨自力으로는 自己를 높일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悟性和 理性이 要求될뿐이다. 悟性和 理性은 感性和 直觀을

**實現**하는 手段일뿐이다. 그러므로 悟性理性등이 知性的 洗鍊을 받은 直觀을 우리는 知的 感性 또는 知的直觀이라 부르는 것이다. 哲學이 오직 解釋이나 認識에 멈추지지 않고 批判과 創造의 哲學이되려면 悟性 理性이 感性 直觀과 緊密히 結着하지 안하면 안될 것이다. 그러나 觀念哲學은 오직 悟性

理性만을 固執함으로서 世界觀을 哲學으로부터 拒否하게 된 것이다. (끝)